

내부자와 관찰자의 중첩된 시각으로 본 뮤지컬 〈Broadway 42 번가〉 백스테이지의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

The Documentary Pictures on the Back Stage of Musical '42nd Street' from the Insider and Observer Point of View

박상원, 양중훈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Sang Won Park(goodman_park@naver.com), Jong Hoon Yang(photopower@korea.com)

요약

‘브로드웨이 42번가’를 통해 극장과 공연 그리고 뮤지컬의 이면을 조망함으로 실상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관객과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언론이나, 홍보물 또는 무대 위에 나타나는 범위의 피사체의 모습이 아닌 무대 뒤 편(Back Stage)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연하는 배우의 입장으로 접근하여 공연의 무대 세트, 분장실, 스토리의 한 사람의 눈으로 그 무대 뒤 삶의 공간의 모습들을 연출된 모습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했다. 본 연구의 공연장 백스테이지의 일상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접근은 자료에 담긴 현재 이렇 없는 뮤지컬 배우나 스태프들이 미래에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뮤지컬, 방송, 영화의 주인공 또는 스타나 주요 스태프로 성장하게 되면, 한 인물의 역사적인 자료로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산업의 자료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홍보물이나 공연사진 등 최종 연출된 산출물로만 남겨지던 다큐멘터리 자료 수집유형에서 벗어나, 보다 사실적인 산업 자료로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다큐멘터리 사진 | 뮤지컬 | 백스테이지 | 다큐멘터리 | 브로드웨이 42번가 |

Abstract

‘42nd Broadway’ is one of the most authentic, genuine and renowned musical pieces among the numerous musicals. By approaching every element in the Backstage from the perspective of an actor who is apart of the show, not a professional photographer, rather than an the usual objects on the Front Stage which is imprinted in the minds of the ordinary people through the media or the numerous flyers sent from the theaters, intended to describe the life as it is in the Back Stage by examining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sets or make-up rooms, rather than the momentary, technically staged imageries. In the industrial aspect as well, the implication of this documentary would be that a more realistic set of photography was provided instead of the existing ones that usually focused on the ‘staged,’ or ‘guarded’ images of the musical as shown in the promotional materials or the Front Stage still cuts.

■ keyword : | Documentary Picture | Musical | Back Stage | Documentary | Musical 42nd Street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사진은 찰나의 미학이며 눈으로 쓴 위대한 글이다[1]. 사진을 통해 다큐멘터리적 방법으로 현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의무와 사명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즉흥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사진가의 기록이란 복사와 같은 기계적인 카피(copy)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에 의한 다큐멘터리 사진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동결해 버리는 창조적 행위이며, 찍혀진 순간에 그것은 과거의 것이 되고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그 시간을 잘라내는 작업에 필요한 것은 피사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 속성상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십년이상을 연구자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기록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것은 순간의 시간을 고정시키는 기록으로서의 사진을 통해 현대인들이 개개인의 한정된 시각과 공간으로 체험할 수 없는 세계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대리 체험하고 정보를 얻으며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연사진은 상황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무대와 호흡하며 그 정신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각 공연은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는 시간 예술이기 때문이다. 공연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을 포착해내고 그것이 가지는 예술적 시각적 가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공연사진의 매력이다. 공연사진은 단순히 일반적인 행사를 기록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평소의 소양이나 경험의 축적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사진과 공연은 서로 성격이 상당히 다른 형태의 예술이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와 상당부분의 지식이 없다면 서로간의 융화를 통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2]. 다시 말해, 공연사진은 촬영 전 공연 전반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매 순간 변하는 무대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수준 높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관찰자적 사진가 입장에서 다큐

멘터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작품 이해에 있어 부족할 수 있다. 공연 작품을 오랫동안 분석한 내부자의 입장이 공연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 있다.

특히 공연의 전후 그리고 중간에 공연장 백스테이지(back stage)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은 공연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다큐멘터리 사진 영역에서는 간과되어 왔다. 공연예술에서도 백스테이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사진의 접근과 관련한 논문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에서 말한 대로 공연과 사진을 모두 이해하는 요소 뿐 아니라 역동적인 공연의 백스테이지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가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공연의 백스테이지의 순간순간들을 다큐멘터리적인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같은 내부자들의 접근이 필수적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년 동안 배우로 직접 참여한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의 백스테이지를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촬영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써의 공연 사진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년 동안 공연의 시간, 공간을 지속적으로 반복 기록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다큐멘터리적 접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로서만 접근하여 사진을 찍는 일반 다큐멘터리 사진가와 달리 공연에 참여하는 내부자와 관찰자의 중첩된 입장에서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의 백스테이지를 다큐멘터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공연에 참가하는 배우(내부자)로서 또한 사진을 전공하는 사진가(관찰자)로서의 중첩된 시선의 접근으로 관찰자적 시각으로만 접근했을 때 내부자들이 보여 주지 않는 뮤지컬 백스테이지의 실제 모습을 사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그 결과물들은 기존 공연예술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정체성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객석에서 본 메인스테이지의 한 장면과 연구자가 백스테이지에서 찍은 같은 장면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 접근한 백스테이지의 사진

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준비 과정, 휴식과 연습 등의 사진을 통해 화려한 기존 공연사진과 차별화된 일상적인 백스테이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2009년부터 2010년(2009 - LG 아트센터 및 지방투어 / 2010 - 샤롯데극장 및 지방투어)까지 2년 동안 상연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분장실, 연습실을 포함한 백스테이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연 이전 준비 작업, 상연 중간의 백스테이지 모습, 공연 후 백스테이지 모습을 연구자가 내부자이자 참여자로서 포착한 기록사진을 분석하였다.

II. 공연사진의 이해

1. 공연사진의 의미

공연사진이란 공연예술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공연예술(公演藝術, performing art)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상연·가창(歌唱)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음악·무용·연극 등 기타 예술적 관람물을 말한다[3]. 즉, 공연예술은 인쇄되어 읽히는 문학과는 달리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버리는 일회적인 예술이다.

공연예술과는 다르게 영화나 TV프로그램은 녹화되어 재생 또는 복제의 특성이 있지만 공연 예술은 공연 순간이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록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공연사진은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극적 긴장감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연극이나 음악, 무용, 쇼에 이르기까지 극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모습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연사진가는 공연을 단순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자와 교감하고 공연 주체의 입장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소통의 최적의 순간을 의미 있고

살아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공연사진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공연사진은 동영상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사진은 한편의 공연을 사진으로 함축하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공연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공연의 분위기나 감동을 기록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공연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을 포착해 내고, 그것이 가지는 예술적, 시각적 가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공연사진의 매력이다[4].

2. 다큐멘터리로서의 공연사진

사진 기록물은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의 주제로 집약되기도 하지만, 차별화된 여러 개의 주제로 나뉘기도 한다.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된 사진기록물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문자와 같은 다른 형태의 매체로 설명된다. 사진이 가진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거나 검색하는 데에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사진기록물의 생생한 정보와 상세한 내용이 결합되어야 더욱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이 필요하다.

사진은 그 자체가 현실이다. 현실에 있는 것만 찍히지, 없는 것은 찍히지 않는다는 사진의 특성이 사진의 기록성을 이루는 뿌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사진은 기록으로서 설득력을 가진다[5]. 사진기록물은 사진이 가진 생생한 현장성으로서 현장을 기록한다. 사진이 갖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진기록물은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사진기록물은 기록으로서의 활동으로 가치가 발생된다[6]. 따라서, 사진기록의 가치는 생산 당시 평가 받지 못한다하여 사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인류의 역사적 기록으로 이어지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진가조차 기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중요한 의미전달은 사진가의 의식에 있고 그 기록의 산물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3. 기록사진으로서의 가치

기록사진은 어떻게,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에 공연사진은 주제를 사진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지 않았더라도 공연을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킬 감동을 주어야 한다. 공연의 제목과 사진의 매치는 별개의 주제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른 고민은 진실을 말해야 함으로 배우들과 주변부의 관계 또는 배우와 배우들과의 관계 등은 곧 공간 속의 배우와 사물 등의 표현은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공연예술은 배우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요소마다 일회성을 가지고 같은 공연사진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그것은 복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상황이 항상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공간의 현존성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가진다. 복제는 원작에 대한 아우라에 관하여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일회적 예술 작품인 공연사진의 의미는 또 다른 논의가 요구된다. 공연 사진의 기록은 대상의 진품성에 대한 아우라를 역사적 증언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공연하는 배우와 관중과의 호흡은 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공연의 같은 장면을 기록하여 증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III. <브로드웨이 42번가> 백스테이지 사진이 갖는 공연사진으로써의 의미

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매출액 대비 평균 20% 정도 성장을 기록해 왔고 최근에는 20%를 상회하는 성장으로 공연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분야다. 뮤지컬은 영화, 게임과 함께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7].

뮤지컬<브로드웨이 42번가>는 스타를 꿈꾸는 코러스걸의 이야기를 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1980년 초연된 이후 3,486회 라는 장기 기록을 세웠으며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아우르

는 화제를 모은 뮤지컬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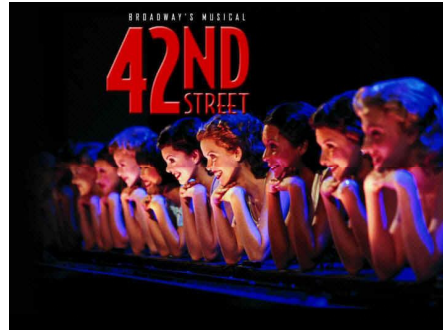


사진 1. <브로드웨이 42번가> 포스터 사진

뮤지컬<브로드웨이 42번가>는 국내에서도 1996년 초연 이후 7만여 관객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웠다. 영화 <42번가>를 무대화한 이 뮤지컬은 유료 객석 점유율 95%, 일일 평균매출 1억여 원을 연일 돌파하는 기록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 인기를 입증한 작품이다[9].

30여개의 구두가 주인공인 뮤지컬<브로드웨이 42번가>는 300여 벌의 무대의상과 함께 극장 안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구두소리의 향연은 관객의 심장을 두드리고 빠른 발동작은 관객을 몰입 시킨다. 20세기 초 탭댄스의 열풍으로 예술적인 장르로 발전시켜 현 시대에는 대중문화산업에 기여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뮤지컬은 음악극의 한 형식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한 것으로 무대에서 상연하는 종합 무대 예술이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뮤지컬의 구성으로 배우, 음악, 대본 등의 무대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 외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설치와 스태프, 무대 뒤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관객들도 구성요소라 볼 수 있겠다.

뮤지컬은 극의 전체흐름을 대변해주는 언어를 쉬운 가사로 대중적으로 배우가 표현을 한다. 배우는 춤과 음악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관객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때론 섬세하게 때론 에너지 넘치게 표현을 하여 관객을 매료 시킨다.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대중에게 폭넓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야기를 음악과 춤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우의 중요한 역할이다.

2. 백스테이지의 특수성

백스테이지란 문자 그대로 스테이지의 뒤쪽 메인 스테이지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또는 화면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으로 보통 제작현장(work area)을 말한다. 공연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프론트 오브 하우스와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편의시설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다. 공연 준비와 진행을 위한 백스테이지는 공간의 사용 주체와 용도에 따라 4가지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배우를 위한 공간으로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의상착용 및 대기를 위한 공간이다. 둘째는, 연습 및 리허설 룸, 무대영상실, 공연세트 및 소품을 위한 창고 등 공연 사전준비 및 무대도구를 위한 공간이다. 셋째, 연출자·제작사·테크니컬 디렉터를 위한 공간으로, 회의공간, 사무공간, 프로그램 북 등 부수적 수익물 관리 공간이다. 넷째,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같이 뮤지컬공연에 참여하는 인원을 위한 편의공간이다[10].

위와 같은 특성상 백스테이지는 배우와 스태프 등 공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관객들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 출연자들은 공연 전에는 주로 대부분이 분장실에 머물기 때문에 백스테이지의 대부분은 공연준비 공간인 분장실이라고 볼 수 있다.

백스테이지란 공연 전의 긴장감과 함께 공연을 마치고 쉬는 공간이기에 그곳에서는 배우이기 이전에 한 인간의 모습이 존재한다. 또한 쉬는 동안 배우 자신의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일은 배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2년에 걸쳐 백스테이지라는 피사체의 특별한 장소성을 기반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백스테이지 사진은 공연하는 배우들의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공연 준비를 위한 내적, 외적 갈등을 기록함으로써 공연 본질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백스테이지 사진은 배우들에게만 보여지는 순간순간의 표정들과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무대 위의 삶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다. 사진의 평면적 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에게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어 화려

함으로 조명 받는 무대에서의 앞모습과 함께 뒤쪽의 모습을 다룸으로써 공연 전부를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관찰자의 관심을 무대 위에서 백스테이지로 전환함으로써 실제와 허구를 교묘히 버무린 무대와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무대 뒤의 현실이야기를 들려주고 보는 사람들 스스로 진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백스테이지의 특성상 관객들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공간 배우와 스태프 등 공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사진을 찍는 사진가라해도 쉽게 접근하거나 작업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하지만 공연의 일환으로써 백스테이지가 갖는 공간적 특수성은 무대 위의 공연물을 기록하는 기존의 다큐멘터리 공연사진과는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IV. 〈브로드웨이 42번가〉 백스테이지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 사진적 단상

1. 메인스테이지와 백스테이지 비교

본 연구자가 실제로 뮤지컬에 참여하는 관계로 메인스테이지 사진은 언론에 노출된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 2와 같이 메인 스테이지 사진은 객석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관객이 바라본 공연예술로써 화려한 뮤지컬의 경험을 전달한다.

사진 3과 같이 백스테이지에서는 메인스테이지와 달리 화려한 공연의 1차적 모습을 포함한, 객석에서 느낄 수 없는 땀과 긴장감, 긴박한 진행과정. 그리고 실수를 포함한 치열한 삶의 과정까지도 입체적으로 보여진다.



사진 2. 메인스테이지 사진



사진 3. 백스테이지 사진



사진 6. 공연이 끝난 후 긴박하게 의상 및 소품을 옮기고 있는 스태프들

2. 백스테이지 모습의 다양한 일상성

사진 4,5,6,7,8 은 공연의 특성상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큐멘터리적 작업으로 공연 이면의 상황들과 배우들의 공연 외적인 일상성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기록 하였다.



사진 4. 객석에서 보이는 화려한 Set의 뒤편 마무리는 구멍이 뚫리고 나무들이 보이고 있으나 반대편의 Set은 완벽한 처리가 되어 있다.



사진 7. 공연 중인 Scene 다음 등장을 위해 무대 뒤편에서 초긴장 상태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배우들



사진 5. 화려한 무대 위의 분장을 위한 분장사의 책상 서랍안의 너구리라면이 무대 위의 화려함에 반해 삶의 소소한 일상이 느껴진다.



사진 8. 낮 공연과 밤 공연 사이에 다음 공연을 위해 식사하고 있는 배우들의 자연적인 모습

V. 결론

본 논문은 연구자가 2년 동안 참여한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 백스테이지 사진 작업의 결과물을 중심

으로 백스테이지 사진이 갖는 다큐멘터리사진으로써 공연 사진의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공연사진 대부분 무대 위의 공연, 무대 앞의 공연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공연의 백스테이지의 모습을 기록사진, 즉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남겨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연과 공연 연습 등이 일어나는 백스테이지는 보통의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접근하기 어렵고, 접근하였더라도 배우 등 공연 관계자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신뢰로운 공연 백스테이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사진적 접근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연의 참여자(내부자)가 공연의 백스테이지 모습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다큐멘터리적으로 관찰자로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공연 백스테이지 사진은 배우들의 내면적인 모습을 실재감있게 전달함으로써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백스테이지 사진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배우가 아닌 자연인의 모습, 공연준비를 위한 백스테이지 공간에 대한 기록으로 확장한다. 이로써 공연 사진의 시각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극적이고 현실감 있는 공연 예술 기록으로써의 가치를 높인다. 본 연구는 직업적 특수성에 기반한 백스테이지 사진 작업은 기존 공연 사진과는 차별화된 공연사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진은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구현해야 한다[11]. 본 연구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백스테이지 사진에 국한되지 않고 공연의 실제 장면, 막과 Scene의 구분촬영, 의상의 구분촬영, 배우의 Cast로서의 모든 분장 상태 및 의상착용, 또 전체연습의 체계적인 촬영 등 공연의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공연의 백스테이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다큐멘터리적으로 남김으로써 공연 사진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 또는 뮤지컬의 백스테이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접근의 경제적 시사점 역시 제공한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경우는 공연시에 모든 공연의 요소들을 기록해서 결과물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작품을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의 뮤지컬 공연에서도 이러한 메이킹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사진의 모음이 관객에게 판매되어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공연의 특성상 접근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지속적인 기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본 연구의 독특성과 기여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내부자이자 관찰자적 입장의 사진가가 많지 않다는 점이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추후 공연 사진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다큐멘터리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공연사진이 단순기록의 기능을 벗어나 공연 전체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공연 관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무대를 넘어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드라마를 내부자와 관찰자 시각에서 다큐멘터리 접근을 하여 대중매체의 제작과정의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이면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면 좀 더 입체적인 드라마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연 현장은 다큐멘터리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대중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감동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생생한 삶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동을 주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삶의 Front와 Back의 모든 것들을 “사진적 상상”으로 담아내면서 일상의 양면을 담은 사진들의 감동과 예술적 가치로서의 시선들을 잘 발전시켜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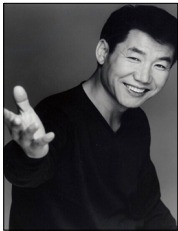
- [1] 양종훈, *6.25 전쟁 60주년 평화통일 사진전*, 통일부, 2010.
- [2] 정석오, “사진을 통한 무용안무가의 함의 전달과정 연구-포토 그래퍼의 기호적 촬영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 [3] 네이버백과사전: 공연예술부분.

- [4] 정진혁, 공연사진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5]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눈빛출판사, p.40, 2004.
- [6] 최윤진, 공공기록으로서 사진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7.
- [7] 이정화, 정기은, 국내 뮤지컬 산업의 발전현황과 변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8] <http://100.naver.com/100.nhn?docid=74325> (네이버 지식백과, '브로드웨이 42번가' 검색)
- [9] 플레이디비(PLAY DB)
- [10] 유재우, 임채진, “뮤지컬공연장의 백스테이지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2호, pp.45-53, 2013.
- [11] 양중훈, *최고에게 묻는다*, 사진예술, 2005.

저 자 소 개

박 상 원(Sang Won Park)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 2012년 2월 :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석사
- 2014년 2월 :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 수료

▪ 현재 :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이미지, 뮤지컬, 포토저널리즘

양 중 훈(Jong Hoon Yang)

정회원



- 1991년 2월 : 미국 Ohio 대학교 포토커뮤니케이션(예술학 석사)
- 2005년 2월 : 호주 RMIT 대학교 ART and Culture(예술학박사)
- 1992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뉴미디어, 디지털이미지, 포토저널리즘